

## 조선후기 문집 간행 및 유통 양상 재고

장유승\*

- I. 머리말
- II. 활자본 문집의 간행 양상
- III. 목판본 문집의 간행 양상
- IV. 문집의 유통과 간행 시기
- V. 문집 간행의 의미
- VI.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문집 간행 양상을 검토하여 한문학 텍스트의 유통 실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활자본 문집은 본디 목판본 문집 간행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 배포용이 아닌 보관용으로 많은 부수를 인출하지 않았으며, 목판본 문집 역시 광범위한 유통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목판본 문집 간행의 목적은 문집의 유통이 아니라 판목의 판각과 보존이었다. 판목은 본디 서적을 인출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그 자체가 문화적 자산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문집의 간행은 평균적으로 저자 사후 1세기 이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당대에 비평적 담론을 형성하기 어려웠다. 이같은 문헌 유통의 실상은 조선시대 한문학이 전대의 성취를 수용, 비판함으로써 발전하였다는 문학사의 연속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필요를 제기한다.

핵심어: 조선본 문집, 활자본 문집, 목판본 문집, 문집 출판과 유통, 판목

---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 1. 머리말

현재 한문학 연구는 근대적 문학 연구 방법론에 의지하고 있다. 한문학 연구의 목적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면, 근대적 문학 연구 방법론을 한문학에 적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근대적 문학 연구 방법론은 다음의 세 가지를 전제로 한다. 첫째, 근대적 문학 개념, 둘째, 근대적 작가 의식, 셋째, 근대적 출판 환경이다. 따라서 한문학에 근대적 문학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문학의 문학 개념과 작가 의식, 그리고 출판 환경이 근대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한 문헌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출판 환경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전하는 문헌의 약 40%가 문집이고,<sup>1)</sup> 한문학 연구의 주요 자료 역시 문집이라는 점에서 문집의 간행과 유통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개별 문집의 간행 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문집 간행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부족한 편이다.

근대적 출판 환경이란 작자가 창작한 작품이 출판을 통해 유통되고, 그 결과 독자의 수용과 비평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전근대 출판 환경이 근대와 같을 리 없으나, 조선시대에 주조된 수십 종의 금속활자, 다양한 목활자의 존재와 수만 장이 넘는 판목, 이를 통해 제작된 수천 종의 문집을 비롯한 수많은 문헌의 존재는 조선시대 출판 환경을 근대와 동일시하게끔 만든다. 그간 축적된 조선시대 출판 문화에 관한 연구 역시 근대와의 차이점을 밝히기보다는 유사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출판 환경은 근대와 달랐다. 텍스트의 창작에서 비평에 이르는 유통 과정 역시 근대와 달랐다. 특히 중요한 것은 텍스트의 유통이다. 유통은 창작과 비평을 연결하는 관건이다. 텍스트의 유통은 작자와 독자를 연결지을 뿐만 아니라, 창작과 비평 행위를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승화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문집 간행 양상을 검토하여 한문학

1) 신승운, 『한국전적정리의 체문제』, 『한국인문과학교육의 체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신승운, 『유교사회의 출판문화 - 특히 조선시대의 문집 편찬과 간행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3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366면에서 재인용.

텍스트의 유통 실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조선전기는 자료가 부족하여 실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조선후기만큼 문집의 간행과 유통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본고에서는 문집의 종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조선후기의 문집 간행과 유통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 II. 활자본 문집의 간행 양상

조선시대 문집은 몇 부나 간행되었을까. 문집 간행 경위를 기록한 간역소일기(刊役所日記) 등의 문헌을 통해 간행 기간과 비용 등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간행 부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드물다. 간기(刊記)에서도 간행 부수는 좀처럼 밝히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교서관인서체자본(校書館印書體字本) 문집의 간기에 간행 부수에 대한 기록이 더러 보이므로, 이 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활자본 문집의 간행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의 간기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문집의 일반적인 간행 부수를 100질에서 300질 사이로 추정했다.<sup>2)</sup> 윤순거(尹舜舉)의 『동토집(童土集)』이 300질, 오도일(吳道一)의 『서파집(西坡集)』이 300질, 남구만(南九萬)의 『약천집(藥泉集)』이 300질, 신정하(申靖夏)의 『서암집(恕菴集)』이 220질 간행되었다는 간기에 바탕한 추정이다. 우선 이 추정의 신빙성을 검증해본다.

『동토집』이 300질 간행되었다는 근거는 “先生下世後七十四年之辛酉季春, 以鐵字印出于墓下丙舍, 凡印三百本”이라는 간기다. 윤순거가 죽은 지 74년이 지난 1741년 철활자(鐵活字)로 3백 ‘본(本)’을 간행했다는 것이다. 『동토집』은 6권 2책으로 장수는 총 150장이다. 300질이면 4만 5천 장이다. 간행 소요 기간은 알 수 없으나, 4만 5천 장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당시 출판 환경에서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그나마 『동토집』은 분량이 적은 편에 속한다.

『서파집』이 300질 간행되었다는 근거는 “上之五年己酉季秋, 以鐵字始印役, 百四十餘日而告訖, 凡印三百本”라는 간기다. 1729년 9월부터 140일 만에 3백 ‘본’을 찍었다는 것이다. 『서파집』은 30권 15책이며 총 1,100여 장이

2) 김영진, 『朝鮮朝 文集 刊行의 諸樣相』, 『민족문화』 제43집, 한국고전번역원, 2014, 10면.

다. 300질이면 33만 장이다. 140일 만에 간행을 마치려면 하루에 2,300장을 인출해야 한다.

『약천집』이 300질 간행되었다는 근거는 “上之三年癸卯，以鐵活字始印役，一百四十餘日而訖，凡印三百本”이라는 간기이다. 1723년, 140일 만에 3백 ‘본’을 찍었다는 것이다. 『약천집』은 34권 17책이며 총 1,300여 장이다. 300질이면 39만 장이다. 140일 만에 간행을 마치려면 하루에 2,700장을 인출해야 한다.

『서암집』이 220질 간행되었다는 근거는 “以活字印行，戊午季秋始役，臘月訖事，而擲得二百二十餘件.”라는 간기이다. 1738년, 3개월 만에 220여 ‘권’을 찍었다는 것이다. 『서암집』은 16권 8책이며 총 600여 장이다. 220질이면 13만 장이다. 3개월 만에 간행을 마치려면 하루에 1,400장 이상을 인출해야 한다. 앞의 두 문집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분량이다.

한 가지 사례를 추가하자면 최창대(崔昌大)의 『곤륜집(昆侖集)』이다. “乙巳夏，以鐵字入印，凡九十餘日而訖工，印得四百餘本.”이라는 간기가 있다. 1725년 여름, 90일 만에 4백 ‘본’을 찍었다는 것이다. 『곤륜집』은 20권 10책으로 총 7백여 장이다. 90일 만에 간행을 마치려면 하루에 3,100장을 인출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조선 최초의 활자 계미자(1403)는 하루 인출량이 수 장에 불과했고, 경자자(1420)는 20여 장, 초주갑인자(1434)는 40여 장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 언급한 4종의 문집은 모두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한 것이다. 교서관인서체자의 하루 인출량은 얼마나 되었을까?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는 1770년(영조46)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의 「상위고(象緯考)」를 편찬할 때 영조가 출판에 담당할 홍계희(洪啓禧)에게 이 점을 질문한 적이 있다. 하루에 몇 장이나 인출할 수 있는가? 홍계희는 하루 20장 정도 인출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인출하면 품질이 떨어진다고 답변했다.<sup>3)</sup> 홍계희는 출판에 남다른 관심을 지닌 인물로서 수많은 서적의 출판에 관여했으니, 그의 답변은 실상에 가깝다고 믿을 만하다.

하루 20장 안팎의 인출량은 교서관인서체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금속활자

3) 『承政院日記』英祖 46年 5月 21日. 上曰: “象緯考則可以刊印乎?” 啓禧曰: “紙物若來，則當刊印矣.” 上曰: “今月內可以進箋乎?” 啓禧曰: “臣意則一日可印二十張，而若加印則恐不精.”

도 마찬가지였다. 1758년 무신자로 간행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은 하루에 겨우 10여 장을 인출했고,<sup>4)</sup> 1781년 현종실록자로 간행한 『영조실록(英祖實錄)』은 하루에 30장을 인출했다.<sup>5)</sup> 이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인출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8세기 금속활자본 서적의 하루 인출량은 30장 정도가 한계였던 것이다.

초주갑인자가 나온 지 300년이 지나도록 인출량에 별다른 진보가 없었다는 점은 의아하다. 하지만 초주갑인자로 인쇄한 책과 그로부터 370년이 지난 1777년 주조한 육주갑인자(정유자)로 인쇄한 책을 비교해도 별다른 진보를 찾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조선시대 선장(線裝) 도서의 외형은 전기나 후기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조판과 인출 기술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인출량이 적었던 것은 국가의 출판물이므로 각별히 정밀하게 인출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간행에 참여하는 인원이 법전에 규정되어 함부로 늘릴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경국대전』에 규정된 교서관 장인의 수는 조선 전 시기에 걸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sup>6)</sup> 반면 사가(私家)의 문집 간행은 일생일대의 대사업이므로 일시적이거나 국가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민간의 출판 역량이 반드시 국가에 미치지 못하란 법은 없다. 그러나 이는 상업 출판이 발달한 중국과 일본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국가가 출판을 주도한 조선의 민간 출판 역량이 국가를 능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서관의 하루 인출량이 30장에 불과한데, 민간에서 그 열 배도 아니고 백 배에 가까운 3천 장을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참고로 1699년 교서관인서체자를 이용하여 민간에서 간행한 김수항(金壽恒)의 『문곡집(文谷集)』은 간행에 참여한 장인들의 직책과 이름이 소상히 밝혀져 있는데, 기초(起草)를 담당한 교련관(敎鍊官) 2인, 균자장(均字匠) 4인, 각수(刻手) 1인, 인장(印匠) 1인, 열자장(列子匠) 7인으로 총 15인에 불과하다. 교서관 소속 장인이 총 102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저히 못 미친다. 기록되

4) 『承政院日記』 英祖 34年 4月 12日. 上曰: “編輯之役, 幾何爲之乎?” 致仁曰: “一日僅印十餘張.”

5) 『承政院日記』 正祖 5年 6月 12日. 上曰: “一日印出, 當爲幾張乎?” 念祖曰: “實錄每以三十張印出, 今此印役, 亦似小不下二十五張矣.”

6) 『經國大典』 「工典」에 명시된 교서관 장인은 治匠 6인, 均字匠 40인, 印出匠 20인, 刻字匠 14인, 鑄匠 8인, 雕刻匠 8인, 木匠 2인, 紙匠 4인으로 총 102인이다.

지 않은 장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명 안팎의 장인들이 조판부터 인출까지 전과정을 맡아 하루 2~3천 장을 인출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동토집』, 『서과집』, 『약천집』 간기의 ‘본’, 『서암집』 간기의 ‘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현재의 ‘질’, 다시 말해 여러 책으로 구성된 하나의 세트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책수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모든 간행 관련 기록의 ‘본’과 ‘건’을 책수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책수를 뜻하는 용례가 많다. 만약 위의 간기들의 ‘본’과 ‘건’을 책수로 간주한다면 『서과집』의 인출 건수는 20부, 『약천집』은 17부, 『서암집』은 27부이다. 너무 적은 듯하지만, 이조차 하루 인출량이 약 150~180장이러야 가능한 수량으로 여전히 과다한 수준이다. ‘본’이 책수 아닌 다른 단위를 가리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문집들의 간행 부수는 위의 추정치를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점은 다른 문집들의 간행 기간과 간행 부수를 보면 알 수 있다.

1699년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한 김수항의 『문곡집』은 5개월이 못 되어 간행을 마쳤다.<sup>7)</sup> 몇 질을 간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문곡집』은 28권 13책으로 장수는 1천 장이 넘는다. 하루 150장씩 인출하면 1질을 인출하려면 6일이 걸린다. 5개월 동안 인출 가능한 수량은 22질이다.

1731년 역시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한 윤증(尹拯)의 『명재유고(明齋遺稿)』는 간행에 11개월이 걸렸다.<sup>8)</sup> 역시 몇 질을 간행했는지 알 수 없다. 『명재유고』는 원집 46권, 별집 4권으로 총 2천 장에 가깝다. 하루에 150장씩 인출하면 13일이 걸려야 1질이 완성된다. 11개월 동안 쉬지 않고 찍어도 25질이 고작이다.

이상 거론한 문집들의 규모는 다르지만 하루 인출량과 제작 기간 대비 완성 부수는 대체로 비슷하다. 하루 150장 인출이 과연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위에 언급한 문집들의 간행 부수는 모두 20~30부 사이에 수렴한다. 교서관인서체자를 제외한 활자로 간행된 문집 가운데 간행 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1778년 한구자(韓構字)로 간행한 남유용

7) 金昌翁, 『三淵集』 拾遺 卷24, <先集印役匠人宴飲時小記>. “先集印出之役, 設于江都者, 載自己卯之八月月半, 以厥十二月晦告訖, 蓋未滿五朔, 而集有十三冊成矣.”

8) 尹東洙, 『明齋遺稿』, <明齋先生遺稿跋>. “遂就原本, 略加節刪, 依朱子大全凡例, 爲之序次, 以活字印若干件. 始役于辛亥五月, 訖功于翌年三月, 凡爲冊五十卷, 而別集四卷, 則往復懷川書也.”

(南有容)의 『뇌연집(雷淵集)』은 어람용 및 국가 보관용을 제외하고 4~50질<sup>9)</sup>, 1814년 정리자(整理字)로 간행한 『홍재전서(弘齋全書)』는 30질을 간행했을 뿐이다.<sup>10)</sup>

이처럼 간행 부수가 적은 이유는 첫째, 활자인쇄의 근본적 성격 때문이다. 활자, 특히 금속활자가 주는 인상 때문에 활자본 문집은 많은 부수를 간행했을 것 같지만, 조선 금속활자의 내구도 및 조판방식은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서적 보급은 중앙에서 간행한 활자본을 지방에서 목판으로 복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활자는 소량 다품종 생산을 위한 도구였으며, 대량생산은 목판인쇄의 역할이었다. 이 점은 선행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둘째는 활자본 문집 간행이 목판본 간행을 위한 중간단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이다.<sup>11)</sup> 중간단계로 활자를 사용한 이유는 비용과 시간 때문이다. 사가(私家)의 목판인쇄 비용은 활자인쇄의 서너 배가 넘었다.<sup>12)</sup> 목판인쇄는 판목의 판각에 드는 비용이 가장 크고, 활자인쇄는 활자 주조에 드는 비용이 가장 크다. 판목의 판각은 필수 공정이므로 목판인쇄의 비용은 줄이기 어렵지만, 활자인쇄의 경우 기존의 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면 활자 주조 공정이 생략되므로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교서관인서체자를 민간에서 자주 빌려 썼다는 증언이 있는데, 이처럼 기존 활자를 사용한다면 목판인쇄보다 활자인쇄가 신속하고 저렴하다.<sup>13)</sup> 그러나 인출과 동시에 조판을 해체하는 활자본은 영구히 전할 방법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집 저자의 후손들은 목판본 문집 간행의 중간단계로서 활자본 문집을 간행했다. 배포를 위한 최종단계가 아닌 이상, 간행부수가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9) 『承政院日記』 正祖 7年 5月 19日. 上曰: “雷淵集印役, 何當告訖?” 鼎修曰: “今月晦間, 可以完役矣.” 上曰: “私件爲幾何?” 鼎修曰: “不過四五十件云矣.”

10) 『純祖實錄』 14年 3月 22日. “印進正宗大王御製弘齋全書一百冊, 景慕宮睿製三冊, 各三十件.” ;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御製弘齋全書二百餘卷, 實爲義理淵海, 政宜播之域中, 家習人誦, 而昇遐後十餘年, 始得編印, 以數十件, 分藏內外館閣五處史庫而已.”

11) 김영진, 앞의 논문, 9면.

12) 『承政院日記』 正祖 6年 4月 25日. “私家印役言之, 活字所費, 若至百餘兩, 則木板所入, 輒過三四百兩, 計其工費, 不啻倍蓰.”

13) 『承政院日記』 純祖 8年 閏5月 12日. “芸閣之置鑄字, 亦多用於私印書冊.” 『承政院日記』 肅宗 15年 4月 5日. “木板開刊, 似爲遲滯, 以校書館活字印出, 便當云矣.” 『承政院日記』 英祖 25年 8月 14日. 上曰: “刊役甚難, 關字易乎? 木板易乎?” 雲達曰: “至於刊役難易, 關字爲易.”

### III. 목판본 문집의 간행 양상

활자본은 인출 직후 조판을 해체하므로 추가 인쇄가 불가능하다. 반면 목판본은 판목이 남으므로 추가 인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때문에 선조의 문집을 활자본으로 간행한 뒤 오래지 않아 목판본으로 다시 간행한 사례가 자주 보인다. (1) 활자본 문집 간행 후 수년 만에 목판본으로 중간한 사례가 많다는 점, (2) 서발 및 부록이 수록되지 않은 불완전한 형태의 활자본 문집이 많다는 점은 활자본이 목판본 간행을 위한 중간단계였다는 증거다.

그런데 (1)과 (2)는 초간본이 목판본인 경우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찌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목판본 문집을 간행하고서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똑같은 문집을 간행한 것일까. 문집에 문제되는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수궁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문집도 많다.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살펴본다.

#### 1. 중간단계로서 간행

활자본 문집은 부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심지어 서발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원고의 일실을 우려하여 서둘러 제작한 것으로, 최종완성본의 제작을 위한 중간단계에 해당한다. 활자본 문집은 대부분 이 중간단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점은 일부 목판본도 마찬가지다. 목판본 문집 역시 중간단계에 속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본다.<sup>14)</sup>

##### ① 이항복(李恒福), 『백사집(白沙集)』 초간본

1629년 이항복의 문인 강원 감사 이현영(李顯英)과 강릉 부사 李命俊이 강릉에서 목판으로 처음 간행했으며, 불과 6년만인 1635년, 문인 정충신(鄭忠信)이 진주에서 목판으로 중간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중간이 이루어진 이유는 초간본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사집』 초간본의 편차와 내용은 몹시 거칠고 소략하여 초고(草稿)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14) 이하 각 문집의 간행 과정은 『한국문집총간 해제』 수록 각 문집의 ‘편찬 및 간행’ 항목을 참조했다.



받고 있다. 수록된 공문서는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문집 수록 과정에서 당연히 산삭되어야 할 부분도 산삭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미비점 때문에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초간본이 미비한 이유는, 초간본 간행 당시가 정묘호란 직후였으므로 일실을 우려하여 급히 간행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행 부수도 소량에 불과했을 것이다. 현재 초간본이 희귀하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② 정구(鄭逋), 『한강집(寒岡集)』 초간본

1636년 문인들이 성주에서 목판으로 처음 간행했다. 간행 당시 용골대가 후급의 사신으로 왔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달아난 상황이었기에 전란이 일어날 조짐이 농후했다. 이 때문에 간행을 담당한 배상룡(裴尙龍), 이서(李箒) 등이 서둘러 간행했다고 알려져 있다.<sup>15)</sup> 이 초간본은 서발도 부록도 없는 간략한 형태이며 현전하는 것이 드물다. 많은 부수를 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집』의 중간은 초간본 간행으로부터 44년이 지난 1680년에 이루어졌다.

③ 유근(柳根), 『서경집(西峯集)』 초간본

1662년 외손 충청도관찰사 오정위(吳挺緯)가 공주(公州)에서 목판으로 처음 간행했다. 4권 2책으로 시만 실려 있다. 3년 뒤인 1665년 외증손 삼척 부사 김진표(金震標)가 삼척에서 목판으로 중간했다. 처음에는 누락된 글만 추가할 예정이었으나 교정을 진행할수록 일이 커져 결국 새로운 판본이 되었다.<sup>16)</sup> 오로지 누락된 몇 편의 시문을 추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3년만에 재간행을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초간본은 중간단계에 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완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시문을 추가하는 작업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④ 이승소(李承召), 『삼탄집(三灘集)』 초간본

외손 북평사 이수동(李壽童)이 1515년 함흥에서 목판으로 처음 간행했고,

15) 李萬運, 『默軒集』 卷6, <寒岡先生文集開刊事實>.

16) 金震標, 『西峯集』, <西峯集識>.

20년 뒤인 1535년 이수동이 충청도관찰사로 재직 중 청주에서 목판으로 중간했다. 초간본과 중간본의 차이는 크지 않다. 추가된 글은 15편에 불과하며 권수는 1권이 늘어났을 뿐이다. 주목할 점은 초간본과 중간본의 간행자가 같은 인물이라는 점이다. 중간본이 초간본과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같은 인물이 20년 만에 간행을 거듭한 이유는, 초간본을 중간 단계로서 서둘러 간행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⑤ 김덕함(金德諫), 『성옹유고(醒翁遺稿)』 초간본

중손 김연(金演)이 안주 목사로 재직 중이던 1700년경 안주에서 목판으로 처음 간행했다. 6년 뒤인 1706년 같은 인물이 경상 감사로 재직하며 목판으로 중간했다. 중간본은 연보, 습유, 부록 등이 추가되었다. 초간본과 중간본의 간행 간격이 몹시 짧고, 부록이 추가된 점으로 보아 초간본은 중간단계의 판본으로 간주하는 것이 온당하다.

⑥ 신즙(申楫), 『하음집(河陰集)』 초간본

후손이 일부 시문을 추려 불분권 1책으로 만들고 1825년 목판으로 처음 간행했다. 10년 만인 1835년 초간본 미수록 시문과 부록을 보충하여 9권 5책의 목판으로 중간했다. 초간본 『하음집』은 분량으로 보나 중간본과의 간격으로 보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⑦ 이춘영(李春英), 『체소집(體素集)』 초간본

외조카 김육(金堉)이 1638년 목판으로 처음 간행했다. 초간본은 초선본(抄選本)으로 1책 분량이다. 10년 만인 1648년 차남 이시해(李時楷)가 전라 감사로 부임하여 목판 3책으로 중간하고, 1년 뒤 삼남 이시매(李時棟)가 전라 감사로 부임하여 다시 간행했다.

⑧ 원경하(元景夏)의 『창하집(蒼霞集)』 초간본

아들 원인손(元仁孫)이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 중이던 1767년경 간행했다. 그런데 불과 6년만인 1773년 영조가 도서관에 간행을 명했다. 처음에 충분한 수량을 간행했다면 6년 만에 다시 간행하지는 않았을 듯하다. 실제로 현재

초간본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남아 있는 것은 전부 중간본이다. 초간본은 분량이 적으며, 행장과 시장을 신지 않고 자지(自誌)만 수록했다고 하니, 부록이 없는 중간단계의 판본에 가까웠던 듯하다.

문집은 일반적으로 서발(序跋), 원집(原集, 저자의 시문), 부록(附錄, 저자의 묘도문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먼저 완성되는 것은 원집이다. 원집이 완성되어야 서발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늦게 완성되는 부분은 부록이다. 묘도문자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로 인해 부록 없이 원집만(또는 서발과 원집만) 먼저 간행되는 문집이 많다. 부록이 완성될 때까지 저자의 시문을 초고 상태로 두는 것은 위험하다. 유일본이므로 없어지면 큰일이다. 이 때문에 문집 간행의 중간 단계로서 저자의 시문을 먼저 간행한 것이다. 활자본 문집은 대부분 여기에 속하며, 목판본 문집의 일부도 여기에 속한다.

배포용이 아니라 보관용이므로 많은 부수를 인출할 필요는 없다. 위에 거론한 문집들은 대체로 초간본과 중간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편인데, 간행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초간본이 나온 지 오래지 않아 바로 중간본의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간본 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중간본 제작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초간본의 간행 부수를 늘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위에 거론한 목판본 문집들의 초간본 역시 규모로 보나 중간본과의 간격으로 보나 중간단계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굳이 목판으로 중간단계의 판본을 제작한 이유는 간행자가 지방관으로 재직할 상황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문집 간행은 저자의 후손이나 문인이 지방관으로 재직할 때 착수하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간행 준비가 충분치 않더라도 지방관으로 부임하면 서둘러 간행한 것이다. 이 경우 배포를 위해 많은 부수를 간행했다기보다는 보존을 위해 소량을 간행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나마 위에 거론한 문집들은 중간단계를 거쳐 최종단계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 사례이다. 훗날 제대로 간행할 계획으로 임시로 소량을 간행했지만 끝내 간행하지 못한 문집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요컨대 목판본 문집이라고 해서 전부 대량 인출과 배포를 목적으로 간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 2. 판목의 소실로 인한 간행

- ① 구사맹(具思孟), 『팔곡집(八谷集)』: 1632년 목판으로 초간본 간행, 병자호란으로 소실되어 16년만인 1648년 목판으로 중간본 간행
- ② 홍인우(洪仁祐), 『치재유고(耻齋遺稿)』: 1607년 목판으로 초간본 간행, 32년만인 1639년 목판으로 중간본 간행, 정묘, 병자호란 영향으로 추정
- ③ 이덕형(李德炯), 『한음문고(漢陰文稿)』: 1634년 목판으로 초간본 간행, 34년만인 1668년 목판으로 중간본 간행. 일부 유문이 추가되었으나 병자호란 영향으로 추정.
- ④ 노수신(盧守愼), 『소재집(蘇齋集)』: 1602년 목판으로 초간본 간행. 1615년 화재로 판목이 불타자 22년만인 1624년 활자로 중간, 다시 28년만인 1652년 목판으로 간행.
- ⑤ 조희일(趙希一), 『죽음집(竹陰集)』: 1681년 목판으로 초간본 간행, 판목 소실로 23년만인 1704년 목판으로 중간본 간행.

이상은 전쟁 및 화재 등을 겪어 판목이 소실되었다는 이유로 재간행한 문집이다. 판목은 화재에 취약하다. 문집 판목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기록은 흔히 보인다. 소실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재간행한 문집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란 이전 간행된 목판본의 판목은 상당수가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전란으로 판목이 없어졌기에 중간했다는 사실을 밝힌 문집이 허다하다. 그렇다면 임병 양란 이전에 간행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중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집은 조선후기에 거의 유통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전란이나 화재로 판목이 소실되었더라도, 그 판목으로 간행한 책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0~30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다시 판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집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현상은 설명하기 어렵다. 문집이 필요해서 판각했다기보다는 판목이 필요해서 판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3. 판목의 손상으로 인한 간행

요행히 전란과 화재를 피하더라도 판목은 무한정 사용가능한 물건이 아닙니다. 판각 후 세월이 지나면 손상을 피할 수 없다. 판목의 손상을 이유로 재간행한 목판본 문집은 다음과 같다.

- ① 임전(任鉞), 『명고집(鳴皋集)』: 1704년 목판으로 초간, 22년만인 1726년 판목 손상으로 중간<sup>17)</sup>
- ② 이집(李集), 『둔촌유고(遁村遺稿)』: 1410년 목판으로 초간, 41년만인 1451년 판목 손상으로 중간<sup>18)</sup>
- ③ 정철(鄭澈), 『송강집(松江集)』: 1633년 목판으로 초간, 41년만인 1674년 판목 손상으로 중간<sup>19)</sup>
- ④ 최명길(崔鳴吉), 『지천집(漣川集)』: 1664년 목판으로 초간, 43년만인 1707년 판목 손상으로 중간<sup>20)</sup>
- ⑤ 김창협(金昌協), 『농암집(農巖集)』: 1710년 목판으로 중간, 44년만인 1754년 판목 손상으로 보각<sup>21)</sup>
- ⑥ 권벽(權擘), 『습재집(習齋集)』: 1608년 목판으로 초간, 45년만인 1653년 판목 손상으로 중간<sup>22)</sup>

위의 문집들은 판목의 ‘완결(刊缺)’을 이유로 중단된 것 중에 초간본과의 간격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밖에 판목의 손상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목판본 간행 후 오래지 않아 별달리 추가된 내용도 없이 다시 목판으로

17) 鄭澮, 『丈巖集』卷23, <鳴皋詩集序>. “公之外玄孫朴尙書權, 出按嶺南節, 始克梓行, 既而板本刊缺, 幾不可讀, 今金泉督郵述, 卽公幾代孫也, 鳩材募工, 就加補完.”

18) 李仁孫, 『遁村雜詠』, <遁村雜詠再刊跋>. “先祖遁村遺稿, 嘗刊在公州, 歲久板刊.”

19) 宋時烈, 『松江集』, <松江原集重刊跋>. “公之文集刊行於世者, 五十年矣, 板本已就刊缺.”

20) 崔錫鼎, 『明谷集』卷12, <先祖漣川集跋>. “右先祖漣川公遺集詩疏筭雜文併十九卷, 故參議李公宰羅州時, 入梓刊行, 卽壬寅年間也. 公之平日所著述, 宜不止此, 而累經兵燹, 草稿多散佚, 公沒後, 始哀稔成編, 李參議令公, 以延陽相公胤子, 視如父兄, 且嘗受業於先祖之門, 遂捐官俸, 相剗剗, 俾不至泯泯無傳, 其亦幸也. 第鋟梓既久, 板本多缺佚刊弊, 李君益著叔謙爲羅牧, 刊者改刻, 缺者補刊而書始完.”

21) 金元行, 『溟湖集』卷13, <祖考農巖先生年譜小跋>. “今趙侯暉光瑞出守安東, 見先生文集之在本府者, 板多刊缺.”

22) 權擘, 『習齋集』, <識>. “一家著述之文, 爲世大禁, 是集之藏於塾者, 絕無而僅有, 板梓之在於公者, 磨滅而殆盡.”

로 간행한 문집들은 판목의 손상으로 인한 중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체로 간행한 지 40년 정도가 지나면 재판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목의 사용연한은 40년일까? 40년은 판목의 손상으로 재판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자금을 모아 재판각에 착수하여 완성을 볼 때까지의 기간이다. 재판각의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곧바로 착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판목의 사용연한은 40년보다 훨씬 짧다고 보아야 한다. 한 세대 정도가 고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부수를 인출한 결과 일찍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일례로 권벽의 『습재집』은 아들 권필이 1608년 공주에서 목판으로 초간본을 간행하고, 증손 권집(權誼)이 1653년 목판으로 중간본을 간행했다. 권집에 따르면, 권필이 죽은 뒤 일가(一家)의 글이 금지되어 당시 『습재집』을 가진 집이 거의 없었고, 공주에 보관한 판목도 전부 마멸되었기 때문에 재간행했다고 한다. 권필은 1612년에 죽었으니 『습재집』 판목이 인출에 사용된 기간은 길어야 4년이다. 4년 동안 몇 부를 간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간행 부수가 많아서 판목이 마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세월이 흐르면서 판목이 저절로 손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권필이 죽은 뒤 『습재집』 판목이 제대로 보관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판목의 사용연한은 보관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 세기 이전에 제작된 판목을 이용하여 후쇄(後刷)한 사례도 확인된다. 하지만 제아무리 정성껏 보관해도 목재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

이황(李滉)의 『퇴계집(退溪集)』은 1600년 처음 간행된 뒤 누차 간행을 거듭했다. 『퇴계집』의 권위를 고려하건대, 판목의 보관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다. 하지만 『퇴계집』 판목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1817년 정축추각본(丁丑追刻本) 『퇴계집』 개간에 참여한 이이순(李頤淳)은 “2백 년 동안 네 번이나 간행했는데 어찌하여 판목이 이렇게 쉽게 상하는가”라고 탄식했다.<sup>23)</sup> 2백 년에 네 번이면 50년에 한 번씩 재판각한 것이다. 정축추각본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겨우 26년만인 1843년 다시 판각했다.(계묘본) 『퇴계집』이 인기가 높아 간행 부수가 많아서 판목이 일찍 손상된 것일까?

23) 李頤淳, 『後溪集』 卷7, <題文集改刊日記後>.“前後二百餘年之間, 凡四下手也, 何其板本之易毀如是耶?”

『퇴계집』을 새로 판각할 때마다 몇 부를 간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843년 간행한 계묘본 『퇴계집』의 인출부수는 11질에 불과했다.<sup>24)</sup> 추가 인출도 가능했겠지만, 『퇴계집』 판목을 아무나 인출해 가도록 선뜻 내주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인출이 잦아서 판목이 손상되었다기보다는 판목의 수명이 대체로 그 정도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목판본 문집의 간행 부수는 얼마나 되었을까? 목판본 문집은 활자본보다 좀더 많은 수량을 간행한 듯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1561년, 홍섬(洪暹)은 부친 홍인필(洪彦弼)의 『묵재집(默齋集)』을 목판으로 20질만 간행했다. 세상에 널리 전하지 않으려 했다고 하니, 평균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기는 했던 모양이다.<sup>25)</sup> 하지만 1571년 유희춘(柳希春)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최부(崔溥)의 『금남집(錦南集)』 역시 겨우 19질을 인출했다.<sup>26)</sup> 1636년 목판으로 간행한 정구(鄭述)의 『한강집(寒岡集)』은 5~60질을 인출했다.<sup>27)</sup> 김장생(金長生)의 『사계유고(沙溪遺稿)』는 1688년 교서관인서체자로 40질을 인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내용상 문제가 있어 전부 세초하고 1년 뒤 목판으로 다시 간행했을 때도 40질을 인출했다.<sup>28)</sup> 정구와 김장생의 위상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량이다. 하지만 이 정도조차 찍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820년 목판으로 간행한 신대우(申大羽)의 『완구유집(宛丘遺集)』은 1차로 26질을 인출하고 4년 뒤 46질을 인출했다.<sup>29)</sup> 목판으로 간행한다고 반드시 많은 부수를 찍는 것은 아니다.

이밖에 ‘백여본(百餘本)’, ‘수백본(數百本)’을 찍었다는 기록이 더러 보이지만, ‘본(本)’이 ‘질(帙)’을 뜻하는지 ‘책(冊)’을 뜻하는지는 위와 마찬가지로

24) 『退溪先生文集刊役時日記』. 류준필, 『책판 제작의 사회·문화적 의의 - 19세기~20세기 초 영남 지방의 문집 간행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117면에서 재인용.

25) 洪思九, 『默齋集』, <後識>. “先祖忍齋公, 以先相國文集, 不欲煩播於世, 而只印二十件, 分送於先執若干位, 只留二件於一家, 此其一也.”

26) 柳希春, 『眉巖集』 卷9 <日記>, “錦南集十九件印出.”

27) 李筭, 『東湖集』 卷3, <師友尺牘>. “文集印頒事甚緊急, 若失此時, 何能廣布乎. 迷兄近有往來苞山之計, 欲令歷拜替達矣, 其行似未易, 茲倩院人以告急速之意, 兄若不肯領可, 則生亦更不言斯文之事矣. 角峯亦助三百卷之紙, 所印幾至五六十件, 亦一幸也.”

28) 宋時烈, 『宋子大全』 卷99, <與李子雨>. “先師遺稿, 自聞未行前粧進之示, 欣幸不能已. 今以舊本三十九件載送珍部, 以爲洗洸以償原紙之地, 而四十餘件未印紙, 逢授營貢生崔有恒處, 此紙亦可取用也.”

29) 안현, 『宛丘遺集의 刊行經緯와 刊本의 特徵』, 『민족문화』 제48집, 한국고전번역원, 2016, 277면.

가지로 불분명하다. 설사 100질 이상을 간행한 사례가 있더라도 일반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정조대 전국에 배포한 윤음(綸音)의 간행 부수가 3~400질이다.<sup>30)</sup> 언해를 읽을 수 있는 독자까지 감안한 간행 부수가 이 정도였다면, 당시 지식인 사회가 2~3백 질의 문집을 소화할 역량이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물론 저명한 문인의 문집은 중간(重刊)을 거듭했고, 보존된 판목(板木)으로 필요에 따라 소량을 추가 인출하는 것도 가능했다. 목판본은 판목이 있으므로 활자본과 달리 필요에 따라 계속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종이만 있으면 계속 인출이 가능했을 것이므로 실제 인출 부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추정일 뿐이다. 인출이 판각보다는 수월하겠지만, 여러 책에 달하는 문집을 인출하는 비용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허전(許傳)의 『성재집(性齋集)』은 150질을 인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sup>31)</sup> 인출비는 총 간행비의 약 1/3 수준이었다.<sup>32)</sup> 소량을 인출할 경우 이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겠지만, 단 1부를 인출하더라도 공정 자체는 동일하다. 규모 있는 문집은 분량이 수백에서 1천 장에 달한다. 단 1부를 인출하기 위해 이 많은 판목을 장판각에서 반출하여 작업하고 되돌려놓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판목을 반출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도 우려할 만하다. 판목의 소장자가 판목 손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번번이 인출을 쉽게 허락해주었을

30) 1783년 기준으로 전국 民人에게 선포한 윤음은 900질을 간행했지만, 이는 諺解를 읽을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숫자다.

31) 1880년 간행된 許傳의 『性齋集』은 사용된 종이의 양으로 추정하면 150질 정도가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손계영, 『性齋先生文集刊用下記』를 통해 본 19세기 후반 문집 간행과정과 간행비용 분석, 『고문서연구』 제46호, 한국고문서학회, 2015, 166면) 간행 과정에서 사용된 종이가 전부 인출 용도라고 볼 수는 없으나, 봉화 법전 진주강씨 고암 강임 후손가에 소장된 <性齋集分佈記>에서 150여 곳의 배포처가 확인되므로, 150질이 간행되었다는 추산은 타당해 보인다.

32) 『성재집』 간행시 총비용 7168냥 중에 종이값이 1531냥으로 20%를 차지했다.(손계영, 위의 논문) 간행에 사용한 종이가 전부 인출용은 아니겠지만 인출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여기에 인출공 인건비가 450냥으로 6%이다. 여기에 식비를 비롯한 기타 잡비는 별도로 있다. 『성재집』 간행에 소요된 기타 잡비 2446냥 가운데 어느 정도가 인출에 쓰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출기간 6개월간의 식비가 전체 식비의 약 20%에 해당하므로 기타 잡비 역시 20% 정도가 인출에 쓰였다고 가정하면, 약 489냥이다. 따라서 인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값과 인출공 인건비, 기타 잡비를 모두 합하면 전체의 35%에 육박한다. 인출기간 역시 전체 공정의 약 1/3에 해당하므로 이 추정치는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도 의문이다.<sup>33)</sup> 일정 부수 이상을 인출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수지가 맞지 않았을 것이며, 무엇보다 그만큼 수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상의 여러 증거들로 미루어, 조선시대 문집 간행 부수는 활자본과 목판본을 막론하고 많아야 수십 부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집 간행 부수가 수십 부에 불과했다면, 이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의 자손 및 문인 뿐이었을 것이다. “선조의 문집을 찍을 경우, 자기 집안 사람만 나눠 갖기에도 양이 부족했을 것이다.”<sup>34)</sup>라는 선행연구의 추정치가 타당하다. 19세기부터는 문집 종수와 간행 부수가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감지되지만, 조선 문집은 간행 즉시 벽을 바르거나 약봉지 신세가 되었다는 증언을 고려하면, 문집 종수와 간행 부수의 증가가 조선본 문집의 독자를 늘렸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IV. 문집의 유통과 간행 시기

과거에는 책의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길었다. 소량을 간행하더라도 일단 간행되면 수백 년간 유통 가능하다. 한 권의 책이 만날 수 있는 독자는 지금의 책에 비해 훨씬 많았을 것이다. 다만 이것은 유통이 활발하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조선시대 서적의 매매는 대개 서쾌(書僮)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거래한 책은 대부분 중국본이었다. 조선본 문집을 거래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묵재일기(默齋日記)』, 『미암일기(眉巖日記)』, 『흙영(欽英)』 등 서적 거래 기록이 비교적 많은 일기류의 저자들이 구해본 책 역시 대부분 중국본이다. 조선본 문집이 유통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했다.<sup>35)</sup>

수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조선 후기 장서가의 등장은 출판문화의 발전을 입증하는 증거로 거론되곤 하지만, 그들의 컬렉션 역시 대부분 중국본이었

33) 지방 관아의 관목을 이용한 인출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김영진, 앞의 논문, 18면 참조. 개인 소장 판목은 접근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4) 김영진,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 - 『欽英』과 『願齋亂藁』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회연구』 제30집, 동양한문학회 2010, 13면.

35) 위와 같은 곳.

다. 중국본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러나 조선본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책이 아니었다. 애당초 많은 부수를 간행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판매를 위해 간행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집을 소유한 이에게 빌려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문집을 빌려보았다는 기록은 흔히 발견된다. 하지만 간본과 사본을 막론하고 문집이 가보처럼 전승되는 상황에서는 아무에게나 선뜻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맥으로 연결된 인물의 문집이 아니면 빌려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집을 빌려보았다는 기록은 문집의 활발한 유통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문집을 구해보기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후기 출판 문화가 아무리 발달했다지만 문헌의 주류는 여전히 필사본이었다. 따라서 간본 문집이 필사를 통해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겠지만, 현전하는 문헌으로 보건대 그런 가능성은 접어두어도 좋을 듯하다. 현전하는 문집 필사본은 대개 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나 간행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이다. 기 간행된 문집을 필사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전체를 필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문집의 일부를 초록한 필사본은 비교적 흔한 편이지만 광범위한 유통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필사본이 지니는 근본적 한계 때문이다.

간본은 본디 필사본의 유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서지학 연구에서 간본의 존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와 반대로 간본의 유통 한계를 필사본으로 극복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간본의 간행 부수가 소량에 불과하니 필사를 통해 널리 유통되었을 것이라는 반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필사본은 유통의 한계가 자명하므로 간본의 역할을 대신하기 어렵다. 간본 문집을 초록한 필사본의 존재는 그만큼 간본이 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아야 한다. 간본의 간행 부수가 소량에 불과했다면, 그 문헌은 널리 유통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간본과 필사본을 막론하고 문집을 통한 시문의 유통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집을 통한 시문의 유통이 불가능한 이유는 또 있다. 문집의 간행 시기다. 조선은 중국과 달리 저자 생존시에 문집을 간행하는 일이 드물었다. 생전에 시문을 정리하는 관습은 보편적이었지만, 문집이 상업 출판으로 신속

히 간행, 유통되는 중국과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조선본 문집은 저자 사후 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다면 저자 사후 문집이 간행될 때까지의 간격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 점은 한국문집총간 수록 문집 952종의 저자 생존시기와 문집 간행시기를 비교한 선행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표 1> 저자의 생존시기와 문집의 간행시기 비교<sup>36)</sup>

	15세기 이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계
15세기 이전	14	13	1	4	3	8	2	45
15세기		12	44	14	13	14	6	103
16세기			7	137	85	91	19	339
17세기				19	144	74	35	272
18세기					21	106	36	163
19세기						7	23	30
계	14	25	52	174	266	300	121	952
(%)	(1.5)	(2.6)	(5.5)	(18.3)	(27.9)	(31.5)	(12.7)	(100)

문집의 간행시기와 저자의 생존시기가 동일 세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자 사후 그리 오래지 않아 문집이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80종으로 전체의 8%에 해당한다. 문집의 간행시기가 저자의 생존시기보다 1세기 늦은 경우는 저자 사후 늦어도 100년 안에 문집이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80종을 포함하면 467종으로 전체의 49%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한국문집총간 수록 문집 중 절반 이상이 저자 사후 1세기 내에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는 문집의 간행시기와 저자의 생존시기를 세기 단위로 파악하여 그 간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필자가 한국문집총간 수록 문집을 대상으로 저자의 출년에서 문집 초간본 간행년까지의 간격을 조사한 결과 역시 선행연구와 큰 차이가 없다. 거칠게 조사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살피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한국문집총간 수록 문집의 약 50%는 저자 사후 100년 안에 간행된 것이다. 100년 안에 간행된 문집만을 대상으로 저자 사망부터 문집 간행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을 계산하면 약 50~60년이다. 요컨대 저자

36) 김수진, 『朝鮮後期 文集刊行의 推移와 그 特徵』, 『어문연구』 제 41권 제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355면.

사후부터 문집 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도 한두 세대는 지나야 비로소 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시기에 간행된 문집이 많은 이유는 한국문집총간 수록 문집의 저자가 학문적, 문학적 명성이 비교적 높은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문집총간 수록 문집 전체의 약 50%는 저자 사후 1세기가 지나서야 비로소 간행된 것이다. 그중 절반 가까이는 2세기가 지나 간행된 문집이다. 3세기, 4세기가 지나 간행된 문집도 드물지 않다. 이처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간행된 문집은 19~20세기에 간행된 것이 대부분이며, 근대 출판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것도 상당하다. 근대에 들어서도 간행되지 못한 채 필사본으로 전하는 문집이 적지 않으니, 수백 년 뒤라도 간행되었다면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저자 사후 한두 세대가 지나야 비로소 문집이 간행되고, 어렵사리 간행된 문집의 부수조차 친족과 문인만 겨우 열람할 정도의 소량이었다면, 문집을 통한 시문의 유통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추정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지금의 연구자들이 하는 것처럼 문집을 읽고 저자의 학문과 문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의 비평 역시 보편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학문과 문학에 당파적 성격이 강한 것도 문헌 유통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접근 가능한 문헌이 동당(同黨) 인물의 문헌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노론 문인이 남인의 문집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리 만무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학문과 문학 담론이 당파 위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선 문인들이 조선의 문학적 전통보다 중국의 문학적 전통에 밝은 것도 문헌 유통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 문인들이 중국 고사에는 해박하고 자국 고사에 어둡다는 것은 조선 초기부터 지적된 사실인데, 자국 문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국 고사에 어두운 것은 당연하다. 자국의 문학적 전통에 대해서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헌 유통의 실상은 문학사의 연속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필요를 제기한다.

## V. 문집 간행의 의미

가장(家藏) 문헌을 조사해보면 어느 가문이나 간본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신연활자본과 19~20세기에 간행된 중국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조선 간본은 비교적 드문 편이며, 경전 및 사서 등의 기본서가 대부분이다. 문집도 어지간한 집안이 아니면 선조의 문집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조선시대 문헌의 주류는 여전히 필사본이었다.

보급을 위해 관청 및 서원 등지에 보관한 판목은 경전과 역사서 등의 기초학습서가 대부분이었다. 기초학습서는 수요가 많다. 종류도 많지 않고, 분량도 문집에 비하면 현저히 적다. 소품종 대량생산에 해당하므로 낮은 비용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집은 반대다. 똑같은 문집은 하나도 없고, 수요는 많지 않은데 분량은 많다.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비용이 높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목판인쇄가 대량생산에 적합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판으로 인쇄했다는 사실이 곧 많은 부수를 간행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1) 목판본 역시 최종완성본 제작을 위한 중간단계로 소량만 제작된 것이 많고, (2) 판목의 수명이 길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간행은 어려우며, (3) 인출 비용과 수요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목판본 문집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목판본 문집 제작의 목적은 무엇인가. 조선후기에 문집 간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지식의 유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신분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굳이 많은 부수를 간행할 필요는 없다. 목판으로 간행하는 것이 ‘영구히 후세에 전할[永久傳後]’의 방법이라는 언급은 자주 보인다. ‘널리 배포할[廣布]’ 방법이라는 언급은 이상하게도 드문 편이다. 목판본 문집 제작은 추가 간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간행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직하다. 다시 말해 판목은 언젠가 필요할 때 다시 간행하기 위해 소중히 보관해두는 것이지, 아무나 종이만 가지고 오면 간행해 주기 위해 비치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판목 자체가 지니는 가치와 권위도 고려해야 한다. 판목은 화폐와 비슷한 점이 있다. 원래 화폐 자체는 가치가 별로 없다. 쇳조각, 종이조각에 불

과하다. 화폐의 가치는 ‘교환가능성’에 있다. 무슨 물건으로든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화폐의 교환가능성은 화폐를 사용하는 순간 사라진다. 돈을 내고 물건을 사면 돈은 없어지고 물건만 남는다는 말이다.

판목은 나무조각이다. 판목의 가치는 그것으로 책을 찍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 다시 말해 책으로의 ‘교환가능성’에 있다. 그런데 판목으로 책을 마구 찍어내면 그 판목은 오래지 않아 못쓰게 된다. 돈으로 물건을 사면 돈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책을 찍어내기 위해 만든 판목을 마냥 책을 찍어내는 데 사용할 수는 없는 이유다. 감가상각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어렵사리 판목을 만들어놓고도 책은 소량만 찍고, 장판각에 고이 모셔두는 것이다. 장판각에 준비한 판목은 책을 찍어낼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충분히 권위를 지닌다.

문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간역소일기에 간행 부수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점도 문집 간행의 목적이 판목의 판각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인부들에게 지급한 밥값과 술값까지 전부 기록해놓고 정작 간행 부수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많은 간역소일기 중에 간행 부수를 밝힌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혹시 간행 부수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간역소일기가 인출보다 판각에 중점을 두었다면, 문집 간행의 목적 역시 인출보다 판각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 점에서 판목의 가치를 역설한 선행연구의 주장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책판의 존재 자체가 사회문화적 권위와 자산으로서 기능”하며, “책판의 소유와 보존 여부가 문집 간행의 목적이 될 수 있다.”<sup>37)</sup>는 것이다. 권위를 과시하기에는 책보다 판목이 효과적이다. 목판본 문집을 간행한 이유는 책이 필요해서라기보다 판목이 필요해서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문집을 통한 시문의 유통이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점은 지금까지 살핀 대로이다. 시문의 유통이 문집 외에 선집 등의 문헌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전하는 문헌의 40%가 문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집 외의 유통은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본 선집은 문집보다 희귀하다. 이 정도 수량으로는 활발한 유통을 입증하기 어렵다. 선집의 간행 부수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문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

37) 류준필, 앞의 논문, 97면.

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다수의 문인들에게 조선본 선집은 구해보기 어려운 문헌이었다. 수록 작가들의 문집을 일일이 구하는 것에 비하면 사정이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시문이 선집으로 유통되는 것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분명하다.

시문의 문헌 유통이 불가능에 가까웠다면 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당대에 널리 회자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집의 간행 부수가 소량에 불과하고, 저자 사후 한두 세대가 지나서야 비로소 간행된다면, 훗날 많은 독자가 자기 문집에 수록된 시문을 읽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중국과 달리 저자 생전에 문집이 출판되는 것도 아니고, 시고와 구전을 통한 유통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작자로 명성을 떨쳤다고 해봐야 수 편의 시문이 알려지는 게 고작이었을 것이다. 남이 읽어주기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시문 창작을 과연 타자를 향한 발화라고 볼 수 있을까. 한문학 연구자들은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전근대의 출판 유통 환경이 근대와 유사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근대의 작가에게서 근대적 작가 의식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 VI. 맺음말

개국 초부터 어렵사리 구축한 국가 출판 시스템은 임병양란을 거치면서 무너졌다. 전란 이후 훈련도감 및 지방 관아를 중심으로 복구를 시도했으나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출판의 중심은 차츰 민간으로 이동했다. 책계(冊契)와 방각(坊刻) 등이 출판의 주체로 부상했다.<sup>38)</sup> 그러나 민간 출판은 수요가 높은 과거시험 관련 서적 및 실용서에 치중했다. 민간에서 간행된 문집이 없지 않으나, 이 역시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문학 관련 방각본은 한시를 짓기 위한 운서와 유서, 그리고 당시 선집이 고작이었다.<sup>39)</sup>

그간 한문학 분야의 서적 유통에 관한 연구는 중국서에 치우쳤다. 국내서의 유통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선행연구에서는 중국서가 광범

38) 박철상, 『冊契로 본 17세기 南인들의 상업출판』, 『대동한문학』 제52집, 대동한문학회, 2017.

39) 이윤석, 『한문방각본의 성격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 제4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5.

위하게 유통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계층에서 폐쇄적으로 유통되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국내서 역시 마찬가지다. 기초 서적을 제외한 간본의 유통은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집은 간행 부수로 볼 때 ‘유통’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창작한 시문이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내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시문을 지어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

전근대의 문학을 근대적 문학 개념에 국한할 수 없으며, 전근대의 출판 환경은 근대적 출판 환경과 달랐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근대의 작가 의식을 근대적 작가 의식과 동일시하는 것도 곤란하다. 현대의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며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가급적 많은 독자가 읽어주는 것이다. 자신의 작품을 읽어주는 많은 독자가 있다면 평론가의 혹평 따위 개의치 않는다. 많은 독자의 존재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전근대의 작가가 바란 것은 많은 독자가 아니었다. 가가호호(家家戶戶) 자신의 글을 읽어주기를 바라며 문명(文名)을 추구한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제아무리 많은 독자가 읽는다 해도 어차피 한정된 지식인 계층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독자의 확대에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 창작 활동의 지속 역시 독자의 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시문이 불특정 다수에게 읽힐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듯하다. 문집은 판매용도 아니고 배포용도 아니다. 보관용이다. 많은 부수를 찍을 이유가 없다. 문집의 저자가 바란 것은 단 한 사람의 독자였다. 당대에 자신의 문집이 유통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작가로서는 작품을 통해 자신을 이해해 주고 거기에 담긴 자신의 이상을 대신 실현해 줄 후세의 누군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후세(後世)의 자운(子雲)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이 소망의 표현이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權 學, 『習齋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金邁淳, 『臺山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金元行, 『溪湖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金昌翁, 『三淵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柳 根, 『西垞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柳希春, 『眉巖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李敬儒, 『滄海詩眼』,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李萬運, 『默軒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李 箬, 『東湖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李頤淳, 『後溪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李 集, 『漚村雜詠』,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尹東洙, 『明齋遺稿』,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鄭 澈, 『松江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鄭 澹, 『丈巖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崔錫鼎, 『明谷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洪思九, 『默齋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http://sjw.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https://db.itkc.or.kr>)

### 2. 논문

- 김수진, 『朝鮮後期 文集刊行의 推移와 그 特徵』, 『어문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353~373면.  
 김영진, 『朝鮮朝 文集 刊行의 諸樣相』, 『민족문화』 제43집, 한국고전번역원, 2014, 5~75면.  
 ———,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 - 『欽英』과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제30집, 동양한문학회 2010, 5~28면.  
 류준필, 『책판 제작의 사회·문화적 의미 - 19세기~20세기 초 영남 지방의 문집 간행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97~132면.

- 박철상, 『冊契로 본 17세기 南人들의 상업출판』, 『대동한문학』 제 52집, 대동한문학회, 2017, 5~29면.
- 손계영, 『『性齋先生文集刊所用下記』를 통해 본 19세기 후반 문집 간행과정과 간행비용 분석』, 『고문서연구』 제46호, 한국고문서학회, 2015, 149~176면.
- 신승운, 『유교사회의 출판문화 - 특히 조선시대의 문집 편찬과 간행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3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365~394면.
- 안 현, 『宛丘遺集의 刊行經緯와 刊本의 特徵』, 『민족문화』 제48집, 한국고전번역원, 2016, 259~298면.
- 이윤석, 『한문방각본의 성격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 제4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5, 417~450면.

##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Literary Collection in the Late Choson Period

Jang, Yoo-seung

This thesis examine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literary collection in the late Choson period. Publishing and distribution of texts extends creative and critical behavior to a social dimension at the individual level.

The print textbook was not for distribution but for storage as an intermediate stage for publishing the woodblock textbook. It is also difficult to find evidence to prove widespread distribution in the woodblock textbook. The purpose of publishing the woodblock textbook was to engrave and preserve the woodblock itself, rather than publishing the book. The woodblock is a tool for drawing out the book, but it is also a cultural asset in itself. The distribution of poetry through the textbook was almost impossible. The reality of such literature distribution raises the need to fundamentally doubt the continuity of literary history.

keywords: Literary works of Choson, the print textbook, the woodblock textbook,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literary works, woodblock

접수일자: 2021. 3. 31. 심사기간: 2021. 4. 1.~2021. 5. 10. 게재결정: 2021. 5. 10.
----------------------------------------------------------------------------